

A Stud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ost-practicum Experiences

예비유아교사들의 사후실습경험 들여다보기

Hui Jung Yu¹

유희정¹

¹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Korea,
yuhucu60@gwangj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st-practice experiences and thoughts of pre-service teachers who have completed the post-practice course, thereby providing practical and relevant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effective post-practice operations. Descriptiv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33 senio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scrutinize their post-practice experiences. The outcome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were revealed to be as follows: First, post-practice experiences have been confirme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support skills for children, enhance teaching skills, and to develop desirable teacher's qualifications and attitudes. Second, for improving post-practice training, expand the period of post-practice work,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choosing a post-practice period according to their needs individually,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department's management of post-practice operation (the assignment of classes and instructors, the content of training) were proposed. The information and conclusions that were drawn from this study that is about post-practice periods, post-practice experience, post-practice operation management would be useful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post-practice in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Keywor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Post-practice Institution, Post-practice Experience, Post-practice Improvemen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후실습 과정을 마친 예비유아교사들의 사후실습 경험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봄으로써 효과적인 사후실습 운영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사후실습 과정을 마친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사후실습 경험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술식 질문지를 제공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사후실습 경험은 유아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능력 향상, 수업 역량 제고, 교사상 구축 및 바람직한 자질 함양을 위한 고민과 노력의 시간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후실습 개선을 위해 사후실습 기간 연장과 연속적 참여, 사후실습 참여 시기 확대 및 자율 선택, 사후실습 운영(학급 및 지도교사 배정, 실습내용 등)에 대한 학과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후실습 기관, 사후실습 경험의 의미, 사후실습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시사점들은 향후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 사후실습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ceived: January 19, 2023; 1st Review Result: March 06, 2023; 2nd Review Result: April 01, 2023
Accepted: April 30, 2023

핵심어: 예비유아교사, 사후실습기관, 사후실습 경험, 사후실습 개선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유아 교사들은 대개 직전 교육을 통해 교수학습, 안전관리, 학부모 교육과 관리, 행사와 사무, 시설설비 관리 등 다양한 교사직 수행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의 실재를 연마함으로써 그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자질을 키워나간다[1].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아 교사로서 다양한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능력은 직전 교육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교육현장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에 직전 교육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직무와 직결되는 교육 실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을 높이고자 교육기관 참여관찰, 사례 기반 수업, 현장 전문가 초빙 수업, 모의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방식을 통해 교육 현장감을 높이고,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하여 교육현장과 연계하거나 교육적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직·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직전 교육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실제적 경험을 쌓아 유아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2].

학교현장실습은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유아교육 전반에서 교사직 수행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교과로 예비교사들이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신장하고 실천적 지식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3][4]. 교육부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교직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현장 기반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직시하여 2009학년도부터 실습교과 이수학점을 4학점 이상으로 늘리고, 교육봉사활동 교과를 신설하여 각각 2학점 이상 운영하도록 하였다[5].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17년부터 실습기간을 4주간(160시간)에서 6주간 (240시간)으로 확대하였다[6]. 이에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를 2학점(4주간) 유지하면서 보육실습 교과를 별개로 운영하거나, 학교현장실습 교과를 3학점(6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실습기간의 양적 확대를 피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 5주기에 이르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평가에서도 교육실습 운영과 내용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실습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교육실습운영, 지도실적, 개선노력 등 교육실습 전반을 평가하고 있고, 평가 배점 비율도 4주기 50점에서 5주기 70점으로 상향하였다[7][8]. 이 같은 실습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들은 모두 예비유아교사들에게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실재를 경험하며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직무 능력의 기초를 갖추어야 하므로 실습경험은 적어도 교원자격실무편람 지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업과 참관 및 실무실습이 균형적일 필요가 있다[9]. 하지만 실습경험에 대한 교육적 성취는 실습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수업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한 수업활동에서만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실습내용이 수업 수행에 편중되어 있음을 엿 볼 수 있다[3][10]. 하지만 더 주목할 문제는 수업활동 중심으로 실습을 마친 예비유아교사들이 여전히 추가적인 수업

실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11][12],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습기간이 제기되고 있다[13][14]. 즉,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균형적으로 경험하기에 부족한 실습시간의 한계는 실습내용이 계획적인 교수학습 활동에 쏠리고, 그 외의 직무 경험은 미흡하거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5-17]. 예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수록 현직교사로서 안정적인 적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습시간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여 균형적인 실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교사의 다양한 역할수행 능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절실하다[11].

실습의 양적 확대는 실습기관 및 대학의 학사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실습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규실습 시간을 확대하거나 사후실습을 운영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송연숙과 박영옥은 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실습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실습 지도교사들 역시 실습제도의 개선책으로 사전 및 사후실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18]. 특히 사후실습은 실습의 양적 확대뿐 만 아니라 정규실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연중 다양한 시기를 교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므로 사후실습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실습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실습생과 실습 지도교사의 실습에 대한 인식, 실습내용, 실습생의 역량 변화, 실습생의 정서와 갈등, 실습 지도교사의 어려움,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실습 개선 등으로, 이들 연구 들은 모두 정규실습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들이며[2][11][16][17][19-24], 사후실습에 대한 연구는 실습 개선 차원에서 정규실습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도입만을 제안한 연구들이 있다[18][25]. 그러나 사후실습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자질 함양에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후실습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그들의 생각과 의미를 살펴,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얻고 문제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사후실습 경험에 대한 생각과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사후실습 운영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는 첫째,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사후실습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의 사후실습 개선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 33명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4주 동안 주 1회, 총 4회의 사전 실습에 참여하였고, 2019년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규실습인 6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마쳤으며, 2019년 9월 3째주부터 총 4회(주 1회)사후실습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는 비교과 형태로 사후실습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사후실습 기관은 대학과 같은 지역에 소재한 기관 중 정규실습에서 참여했던 기관을 유지하거나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와 상황에 따라 학과와

조율을 거쳐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후실습이 있는 2학기는 종일 실습을 위한 특정 요일을 정해 전공 교과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에게도 교양 교과 수강 신청 시 실습일을 고려하도록 미리 안내하였다. 사후실습 참여 요일과 기간은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참여 요일, 실습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조정된 7개 기관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2019년 9월 18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4주간 진행되었다. 사후실습 기관의 기본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후실습 기관 기본현황

[Table 1] Basic Status of Research Participants' Post-practice Institutions

사후실습 기관	정규실습 기관 유지여부 이유	기관 유형	기관 수	참여 학생 수
정규실습 기관을 유지한 경우	-실습 유아들에 대한 그리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체계적 실습 지도에 대한 만족	공립유치원	7개 기관	7명
		사립유치원	8개 기관	16명
소계		-	15개 기관	23명
다른 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이동거리 문제 -정규실습 기관에 대한 불만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요망	공립유치원	4개 기관	7명
		사립유치원	3개 기관	3명
소계	-	-	7개 기관	10명
합계	-	-	22개 기관	33명

2.2 연구절차

연구자는 먼저 2019년 9월 첫째 주 사후실습 참여 예정인 4학년 학생 57명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협조 사항을 공지 하고, 의무는 아니나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35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협조 사항 및 일정을 안내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기술식 질문지 마련을 위해 2019년 9월 첫째 주 중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중 기관 사정으로 8월 중 이미 1~2회 참여한 학생 5명(정규실습 기관을 유지한 학생 3명,기관을 변경한 학생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학생들의 사후실습기관과 사후실습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질문을 통해 문항구성을 위한 정보를 구체화하여 나갔다. 연구자는 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정규실습 기관을 유지한 경우와 변경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 기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분하였고, 사후실습을 통해 경험한 것과 알게 된 것들은 구체적인 경험 기반의 사후실습 의미로 통합하였으며, 사후실습 시 어려움과 개선점은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선점으로 통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석사학위를 소지한 유치원 원감 1인과 유치원 교사인 박사과정 1인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 문항은 사후실습기관의 기본현황(정규실습 기관의 유지 여부, 유지/변경 이유,실습 기관 설립 유형), 사후실습 경험의 의미, 사후실습을 위한 개선 사항의 3개 문항(하위 문항 포함 5개 문항)이다.

확정된 기술식 질문지는 2019년 9월 둘째 주 초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35명에게 e-mail로 배부하면서 문항을 숙지하여 실습 중 주요 내용들을 메모해 둔 후 질문지 작성 시 참고할 것을 권하였고, 기술식 답변인 만큼 자신의 상황, 생각, 의견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기반으로 충실히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질문지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은 연구자와 대면, 전화, e-mail을 통하여 문의할 것과 작성된 질문지는

2019년 11월 첫째 주까지 연구자에게 직접 또는 e-mail로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최종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기술식 질문지 35건 중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총 33건이다. 수집된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 연구자와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치원 원감 1인은 각자 기술식 질문지 33건을 문항별로 답변을 모은 후 답변 내 유사한 내용을 묶어 분류하면서 정리하였다. 이후 정리한 자료를 공유하고 재 검토하는 협의과정을 통해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하면서 주제어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의 유사성을 통합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출된 범주체계 및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을 전공한 박사과정 1인과 더불어 총 3인이 범주체계와 사례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종 범주 체계는 2개 영역의 6개 범주에 따른 10개 하위내용이다.

3. 연구결과

3.1 사후실습 경험의 의미

3.1.1 유아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능력 향상

3.1.1.1 유아의 발달적 변화 및 연령별, 연령차에 대한 이해

정규실습 기관을 유지하여 사후실습을 한 경우 학급 배정 시 정규실습 학급 유아와 다른 연령 유아를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거나(사립유치원 2명, 공립유치원 1명), 기관의 사정상 보조 인력이 필요한 학급에 배정한 경우(사립유치원 1명, 공립유치원 1명)를 제외하고 정규실습과 동일한 학급에 배정되었다. 정규실습 종료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아들을 다시 만난 예비유아교사들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큰 폭의 성장과 발달로 변화된 유아들의 모습과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활동내용과 방법에서도 유아들의 발달적 변화와 수준에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유아들의 발달 변화와 수준, 그에 부응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가 심화되고 구체화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정규실습 때와 다른 연령 유아를 경험한 경우에는 다양한 연령의 유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사후실습 때 같은 반에 배정되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실습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변해 있어서 놀라웠다. 키도 크고 얼굴도 형님 같아지고 놀이도 잘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의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었다. 같은 반에서 실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다(예비교사 16).

실습 유치원에서는 5세 반이었는데 사후실습은 3세 반에서 하였다. 3세 유아와 직접 활동하면서 3세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실습했던 5세와 3세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예비교사 17).

3.1.1.2 개별 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

예비유아교사들은 정규실습 경험이 기반이 되는 사후실습에서는 좀 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 정규실습 중 미처 보지 못했던 개별 유아의 기질, 놀이 선호도,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아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사후실습 경험이 갖는 중요한 의미로 보았다. 이 같은 내용은 주로 정규실습 기관을 유지하고 동일한 학급에서 사후실습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제시하였다.

정규실습 때는 하루 하루가 힘들었는데 사후실습은 아이들 이름도 알고 일과도 익숙해서 훨씬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실습할 때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특성이 보이면서 어떤 기질인지, 성향인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한명 한명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예비교사 12).

3.1.1.3 특별한 상황 및 요구가 있는 유아에 대한 이해

사후실습 중 예비유아교사들은 새로 전학 온 유아, 다 문화권 유아 등 학급 내 특별한 상황 및 요구가 있는 유아들을 전담하거나 특별한 요구가 있는 유아의 행동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집중하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정규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같은 경험들을 사후실습에서 경험하며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따라 유아가 갖는 어려움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것을 사후실습 경험이 갖는 중요한 의미로 제시하였다.

사후실습을 나가보니 새로 전학 온 여자친구가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00이가 소극적이고 수줍음도 많아 친구들과 어울리는게 힘들다고 하시며 내가 오는 날만이라도 00를 맡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중략) 내가 00이와 둘이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부르지 않아도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함께 놀이하게 되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쉽게 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00이는 내가 실습을 마칠 무렵 친구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친구가 없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예비교사 16).

00이는 엄마가 베트남 분이신데 내가 실습을 마칠 무렵에 왔었다. 00이는 우리말을 잘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과 대화도 없고 놀이도 하지 않았다. (중략) 솔직히 실습할 때 나는 00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몰라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관심 가질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선생님이 00와 상호작용하시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중략) 실습할 때는 선생님께서 00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시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는데 사후실습을 하면서 00를 어떻게 대하시는 눈에 들어왔다. 이것은 사후실습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예비교사 32).

3.1.2 수업 역량 제고

3.1.2.1 유아와의 상호작용능력 향상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 또한 교육현장에 기반한 활동인 만큼 유아들과 직접적이며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면서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담감은 감소 되고 상호작용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실습할 때는 수업계획서 작성하고 수업 자료 제작하는 것이 부담이 컸는데 사후실습은 그런 부담 없이 유아들과 긴 시간 같이 지내면서 상호작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면서 실습 때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고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예비교사 19).

3.1.2.2 일과 운영 및 일과 시간대별 교사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 중 학급 일과에 함께 참여하면서 시간대별 활동 특성과 교사의 주된 역할 및 유의점에 대해 더 확실한 이해를 갖고 능숙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유치원에서 다시 종일 지내면서 교사로서 일과 시간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하는지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실습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업계획서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자료 만들고, 수업 망치지 않으려고 연습하느라 시간도 부족했고 너무 힘들어 기계적으로 따라갔던 것 같다. 사후실습에서 의미를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예비교사 18).

3.1.2.3 실습 참여 시기의 차이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활동 경험

예비유아교사들은 정규실습과 사후실습의 참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실습 기간 중 경험하지 못한 행사나 견학 활동 등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 수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사후실습 중 유치원의 2학기 일정 상 실습 때 경험하지 못한 인형극, 박물관, 문화원 체험활동을 주로 하였다. 매주 외부로 나가 교실에서 활동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했지만 유아들과 갈 수 있는 곳, 체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 안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 중요한 지도 방법들을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예비교사 1).

8월 중 물놀이 행사를 하는데 사후실습을 미리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물놀이에 참여했다. 유치원 옥상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다. 선생님께서는 물놀이 준비, 물놀이 방법, 유의점과 아이들이 수영복을 입고 벗고 샤워할 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실제로 물놀이하는 날 보조 교사를 하면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예비교사 27).

3.1.2.4 다양한 수업 유형 경험 및 새로운 지도교사의 모델링

예비교사들은 사후실습 중 정규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업 유형을 관찰하거나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기관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지도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수업 방법과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전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이 같은 경험들로 수업유형 및 전략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사후실습 때 해보고 싶은 수업이 있는지 물어셔서 게임수업을 하였다. 게임은 모의수업이나 실습할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해 걱정이 되는 수업이었다. 다행히 사후실습 때 선생님 수업도 볼 수 있었고 지도를 받으며 수업을 해볼 수 있어서 부족함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일 보람 있었다(예비교사 17).

사후실습을 다른 기관에서 하면서 새 노래 배우기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 새로 배울 노래를 놀이 시간에 미리 틀어 주어 유아들이 멜로디를 익히게 하고 노랫말을 유아들 경험과 연결해 스토리를 만들어 들려주는 것들이다. 유아들도 흥미로워 했지만 나도 새롭고 흥미로웠다. 노래 배우기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후실습을 다른 유치원에서 하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예비교사 33).

3.1.3 유아교사로서 교사상 구축 및 바람직한 자질 함양을 위한 고민과 노력의 시간

정규실습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처음으로 교육현장에서 유아들과 직접 활동하며 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보니 부담을 갖고 바쁜 일정에 쫓기며 경황 없이 참여했다면 비 교과로 운영되는 사후실습은 정규실습 경험이 기반이 되어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고민하고 다짐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유아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적, 개인적 자질을 스스로 점검하며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실습을 마치고 다시 유아들과 함께하니 매일 바쁜 일정에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실습했던 때 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고 유아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도 더 많이 느껴졌다. 그래서 사후실습을 계기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되새기며 더 다지고 굳히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는 시간이 되었다(예비교사 26).

정규실습에서 아쉽거나 부족한 점을 생각하며 사후실습을 하게 되니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사후실습을 통해 나의 능력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한 만큼 사후실습을 했고 안 했고는 교사가 되었을 때 분명 실력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예비교사 20).

3.2 사후실습 개선을 위한 생각

3.2.1 사후실습 기간 연장 및 연속적 참여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 경험이 자신들에게도 의미 있고 기관에도 도움이 되려면 무엇보다 사후실습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고, 주 1회가 아니라 연속적 참여로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주 1회, 4주간의 사후실습은 최종적으로 교사로서 역량을 보장하고 심화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주1회 참여는 시간의 단절로 교육과정운영이나 활동진행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기관을 변경한 경우 상호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활동, 행사, 현장학습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이 사후실습일과 일치할 경우 실습활동이 제한되므로 모든 요일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연속적 참여가 더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요일에 가다 보니 학급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에 가면 관찰했던 놀이 상황은 이미 끝나버렸고, 다른 놀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흐름을 전혀 알 수 없어 아쉬웠다. 일주일을 매일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예비교사 15).

주 1회 가다 보니 유아들이나 담임선생님과 친해지기가 어려웠다. 특히 아이들이 한동안 나를 낯설어 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차라리 짧더라도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 담임선생님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해 주셨다. 그리고 교사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일주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예비교사 20).

정해진 요일만 가기보다 모든 요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실습한 곳은 수요일마다 모두 모여 안전교육을 주제로 새 노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마치 교사들의 경연장 같았고 여기가 유치원인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하지만 다른 수업 때문에 요일을 바꾸지 못하여 사후실습 내내 배울 것이 없어 속상했다(예비교사 22).

3.2.2 사후실습 참여 시기 확대 및 자율 선택

예비유아교사들 중 사후실습 참여 시 이동 문제로 부득이 실습 기관을 변경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갖거나, 실습 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 기간을 여름방학을 포함하여 폭 넓게 운영하여 실습생들의 개인적 필요와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나는 졸업하고 취업할 것도 생각해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유치원으로 실습을 나갔다. 하지만 사후실습은 학기 중 수업을 들으면서 하게 되어 유치원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사후실습을 여름방학 중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습했던 곳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예비교사 4).

재량 휴일로 쉬는 날이 몇 번 있었는데 하필 내가 실습 나가는 요일과 겹쳐 실습이 밀리면서 시험보는 주까지 나가게 되어 정말 힘들었다. 여름방학 중에 할 수 있었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밀린 일정으로 힘들지 않아도 되고, 수업을 들으며 실습하지 않아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예비교사 17).

3.2.3 사후실습 운영에 대한 학과의 관리 강화

3.2.3.1 실습 지도교사 및 학급 배정에 대한 관리 강화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급 배정을 실습 기관이 전적으로 결정하면 실습생의 발전보다는 학급 유아들의 특성이나 교사의 능력 문제로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을 우선 시 하여 실습생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사후실습도 실력 있는 교사 학급에 배정되어 지도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우리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을 더 보고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더 관찰하면서 지도 받고 싶었는데 유치원에서는 신입 선생님 반에 배정해 주셨다. 사후실습도 실습인데 실력있는 선생님이 지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급 배정을 유치원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예비교사 31).

사후실습때 다른 반에 배정해 주셨는데 내가 들어간 반은 말 안 듣기로 아주 유명한 반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유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봐도 선생님이 유아들에게 너무 끌려 다니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우 사후실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습생 입장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사후실습도 능력 있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과에서 미리 요청하고 확정된 상태에서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예비교사 32).

3.2.3.2 학급 내 일과 참여 시간 보장 및 실습내용에 대한 관리 강화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에서도 유아들과 일과를 함께 하면서 교사와 유아를 관찰하거나 유아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몇몇 기관에서는 학급 밖에서 교육활동이 아닌 다른 업무를 주로 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경우 예비유아교사들은 일정 시간이라도 반드시 학급에 참여하여 유아와 교사의 활동을 관찰하고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수업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 등 실습내용이 보다 교육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고, 지나친 청소나 밀린 정리 등의 업무들은 배제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나는 사후실습에서 선생님의 모범적인 수업과 상호작용을 더 보고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실습 내내 교실엔 들어가지도 못했고 밖에서 계속 다른 일만 하였다. 유치원에서는 사후실습을 봉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적어도 점심시간 전까지는

교실에서 지낼 수 있는 뭔가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예비교사 12).

내가 실습 나갔을 때 하필 유치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시기와 겹쳐 서류 정리와 평가 준비만 하다 왔다. 평가인증 작업은 필요한 경험이지만 한데 실습 내내 교실에서 유아들과 활동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쉽다. 4회 중 2회라도 아니면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교실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예비교사 29).

실습 활동은 유치원에서 필요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거의 청소만 하다 왔는데 다른 유치원에 간 친구들은 수업도 해보았다고 하니 시간이 아깝고 속상했다. 어떤 유치원에 가든 기본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예비교사 30).

3.2.3.3 수업 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지도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을 하며 정규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한 유형의 수업 또는 개인적으로 필요나 요구가 있는 수업의 기회를 갖고 정규실습에서처럼 체계적으로 지도 받으며 준비하고 수업함으로써 수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사후실습 중 수업을 해보았지만 지도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교실을 비우면서 갑자기 수업을 맡긴 상황이었다. 느닷없이 수업을 하다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솔직히 수업을 했다가 보다 유아들을 통제하는데 더 급급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자신감만 더 떨어진 것 같았다(예비교사 8).

나는 사후실습에서 동극과 이야기 나누기 수업을 더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계속 보조교사 역할만 했고 수업 기회는 끝내 없었다. 내가 못해 본 수업이나 어려운 수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사후실습이 의미 있을 것이다. 후배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예비교사 13).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후실습을 마친 예비유아교사들의 사후실습 경험에 대한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사후실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에 연구결과에 따라 주지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 경험의 의미로 유아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능력 향상, 수업 역량 제고, 교사상 구축 및 바람직한 자질 함양을 위한 고민과 노력의 시간임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후실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인 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원 능력 향상 및 수업 역량 증진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결과는 지도교사와 예비유아교사 모두 실습 경험 중 교육활동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실습 활동 대부분을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16][18][26]. 그러나 유아교사의 역할이 매우 다양한 만큼 실습경험에 대한 인식은 교육실습에 편중된 것에서 교육과 실무가 균형적인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로서 바람직한 자질 함양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으로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예비유아교사의 실습 이후의 인식을 밝힌 조안나의 연구에서처럼 실습 경험을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26]. 그러나 교사상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정규실습 기간을 진로 결정 및 갈등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안나의 주장과는 다소 대조적으로, 사후실습은 정규실습을 토대로 예비유아교사들이 향후 자신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27]. 이는 사후실습 경험이 좋은 교사로서의 자격과 책임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교사로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사후실습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가치와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후실습 개선으로 사후실습 기간 연장, 연속적 참여, 사후실습 참여시기 확대 및 자율선택, 사후실습 운영에 대한 학과의 관리 강화를 제안하였다.

사후실습 기간 확대에 대한 제안은 사후실습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수 능력과 학급 운영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어 정규실습 기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임승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7]. 또한 국내 교육실습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노숙원,박일수,설양환의 연구에서 실습기간 연장과 연속적인 운영으로 예비교사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 교직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고 수업 역량을 제고 할 수 있기에 대학의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보다 유사한 맥락 이다[15]. 한편, 학과 차원에서 실습 관리를 강화해 줄 것에 대한 제안은 실습내용을 실습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실습 내용의 편차가 다양함을 지적한 이미란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17]. 이승은,김정주는 실습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대학으로부터 실습 내용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면서 상호 협의와 실습에 대한 표준지침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5]. 이에 모든 참여 기관의 실습 내용은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해두고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뉴얼 활용을 위해 학과와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기관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사후실습 과정의 도입 여부나 교과, 비교과의 운영 형태가 대학마다 다르지만 국가 차원의 지침을 제공하여 사후실습의 질적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사후실습 과정을 교과로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후실습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예비유아교사들이 제안한 수업 기회 제공 및 지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송영숙, 박영옥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송영숙, 박영옥은 실습 운영의 실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실습지도 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하면서 실습지도 교사들이 정규실습 기간만으로는 실습생의 수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후실습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실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18].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사후실습 경험은 유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업 역량을 높이며 바람직한 유아교사상에 대해 고민하고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의미있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의 사후실습의 도입과 운영은 우수교사 양성을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후실습은 정규실습 경험을 보완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을 다듬는 직전 교육의 최종 과정이다. 이에 유아교사직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고려하여 정규실습 중 기회를 갖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것들에 대한 개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지도가 요구되는 만큼 정규실습 경험에 대한 추후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사후실습 내용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후실습기관은 개별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습기간은 여름방학을 포함하여 1주 이상의 연속적인 참여 형태로 운영하며, 참여 시기 또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습 학급 및 지도교사 배정과 실습 내용 등은 실습기관에 일임하기보다 기관과 학과 간 상호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사후실습 경험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후실습의 진정한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후실습 경험의 의미 및 사후실습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시사점들은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사후실습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구의 대상이 한 대학의 재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는 만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로 확대하여 다양한 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시행하고 도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후실습 도입과 운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5.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References

- [1] J. S. Yeom, M. S. Lee, H. S. Cho, H. J. Kim,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Gyeonggi-Do: Jungmin Publisher, (2022)
- [2] S. Kim, A Stud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Changes about Basic Vocational Competencies and Relation of Student Teaching Satisfaction Level,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2020), Vol.7, No.2, pp.113-125.
- [3] H. Y. Kim, Y. J. Kang, Pre-service Teachers' Practicum Experience: Analyses Conducted by Using their Practicum Journal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 Vol.8, No.8, pp.547-556.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8.052>
- [4] E. H. Park,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Seoul : Changji Publisher, (2020)
- [5] Ministry of Education, 2019 Teacher Qualification Examination Practice Handbook, (2009)
- [6]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9492, Jul 20 (2021)
- [7]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4-Cycle Teacher Training Institute Evaluation Handbook, (2015)
- [8]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5-Cycle Teacher Training Institute Evaluation Handbook, (2019)
- [9] Ministry of Education, 2021 Teacher Qualification Examination Practice Handbook, (2021)
- [10] S. H. Lee, A Research on Unexpected Class Situations Experienced by Pre-service Preschool Teachers and Their Response and Follow-Up Measure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2015), Vol.15, No.3, pp.231-249.
UCI: G704-SER00008863.2015.15.3.009
- [11] S. Lee, J. Kim, An Analysis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in School Field Practice: Based on Kindergarten Teachers Competence Development Evalu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Vol.17, No.20, pp.1-19.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20.1>
- [12] C. H. Park, K. H. Jeon, Analysing Concept Networks of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Teaching Competency during Teaching Pract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4), Vol.18, No.4, pp.289-306.

UCI: G704-000814.2014.18.4.017

- [13] H. S. Kang, In Search of the Reflection and Orientation of the Practicum in Korea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3), Vol.30, No.3, pp.47-74.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3.30.3.47>
- [14] S. Y. Kim, Factors Motivating Student Teachers - Based on Field Placement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7), Vol.23, No.3, pp.145-165.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7.23.3.145>
- [15] S. W. Noh, I. S. Park, Y. H. Sol, A Study of Research Trends in Korean teaching practi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 Vol.18, No.5, pp.309-333.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5.309>
- [16] S. Lee, S. Yu, An Analysis on Job Experience in Teaching Practi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2019), Vol.18, No.4, pp.57-75.
DOI: <https://doi.org/10.21183/kjem.2019.12.18.4.57>
- [17] M. R. Le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racticum Experience in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Shown in Practice Teaching Journal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 Vol.12, No.6, pp.227-248.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6.227>
- [18] Y. S. Song, Y. O. Park, A study on recognition and requirement of cooperating teacher for kindergarten teaching practice,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015), Vol.14, No.3, pp.219-242.
UCI: G704-002046.2015.14.3.005
- [19] J. Baek, An experiential study of the practicum of pre-service teachers on what they do and how they fee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6), Vol.36, No.4, pp.201-222.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4.009>
- [20] W. K. Sung, C. J. Lee,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competency before and after student teaching,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019), Vol.20, No.4, pp.171-190.
DOI: <https://doi.org/10.15409/riece.2019.20.4.9>
- [21] S. Shin, The Effect of Kindergarten Teaching Practice on Teaching practice Work stress and Internal Motivation of Pre-service Chil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 Vol.19, No.10, pp.443-466.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0.443>
- [22] C. J. Lee, Understand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ecosystem of young children in the 'Living things in the Park' project as an exampl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019), Vol.21, No.3, pp.233-257.
DOI: <https://doi.org/10.15409/riece.2019.21.3.11>
- [23] C. J. Lee, W. K. Sung, An explora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s in their journals during the practicum,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020), Vol.22, No.3, pp.118-137.
DOI: <https://doi.org/10.15409/riece.2020.22.3.6>
- [24] C. Y. Jo, S. H. Jwa, A study on the confli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during teaching practice in kindergarten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014), Vol.13, No.2, pp.193-213.
UCI: G704-002046.2014.13.2.009
- [25] S. E. Lee, J. J. Kim, A Study on Cooperating Teachers Instructing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Internship Program in Early Childhood Teaching Practice Progra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7), Vol.34, No.2, pp.193-220.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7.34.2.193>
- [26] A. Cho, An Analysis of Change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rough Practice in School Fields: Focusing on Perception, Teacher Competence, and Teaching Efficac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 Vol.19, No.5, pp.1173-119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5.1173>

[27] S. R. Lim, Reinventing Student Teaching Program, Educational Reserch, (1995), Vol.4, pp.77-97.